

2) 중국인과 타마린드 잎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을 떠나 태국으로 이주한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꼬용과 꼬풍은 중국을 떠나 태국에 도착해서 2년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2년 후 게으름뱅이가 되어 가난하게 사는 꼬풍은 타마린드 과수원을 열심히 운영하여 돈을 번 꼬용을 만나 함께 일하게 됩니다. 꼬용은 계속 게으름을 부리는 꼬풍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타마린드나무 잎을 따게 합니다. 작은 나무는 잎을 다 따자 금방 죽지만, 큰 나무는 아무리 따도 새잎이 나와 튼튼한 것을 보고 꼬풍이 깨달음을 얻어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 사이의 우정,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과 꾸준한 인내의 중요성, 이주와 사회 편입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주자들도 자기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꼬용과 꼬풍은 왜 태국으로 가게 되었나요?
- 꼬용과 꼬풍은 각자 어떻게 살았나요?
- 꼬용이 꼬풍에게 타마린드 잎을 따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꼬풍이 작은 나무와 큰 나무에서 잎을 따면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태국

Tip!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로, 타이족과 라오족 등 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태국의 국교는 불교로 정해져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태국에는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 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가정·사무실·상점까지도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서 타이 국민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매우 큰 편입니다.

태국의 예술은 건축·미술·음악·연극·문학·자기 및 도기 공예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태국 건축양식은 보통 목재로 지은 불교 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 태국에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Tip!

태국의 인구 비율은 타이인 75%, 중국인 14%, 말레이인 4%, 기타 7%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삽니다. 중국인들은 태국에 잘 정착해서 태국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 꼬용과 꼬풍처럼 자기 나라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다.

Tip!

전 세계 이주민: 2005년 195,245,404명
2010년 213,943,812명(2010년 말 현재, 출처: 국제이주기구)

- 우리나라에 사는 이주민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들이며, 무슨 이유로 이주했는지 알아보시다.

Tip!

우리나라는 약 700만 동포를 해외에 배출하였고, 약 120만 이주민을 받아들였으므로 배출한 인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최근 이주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주노동자 도입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수: 1,418,149명(2011년 9월 30일 기준,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재외동포수: 7,268,771명(2010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외교통상부)

‘이주’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사회적·정책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주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그 개인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요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요인을 배출요인(밀어내는 요인)과 흡입요인(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송출국(보내는 나라)의 빈곤과 실업, 출신국의 인력송출정책(주로 외화벌이와 실업해소),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전반적인 의식, 더 나은 벌이를 요구하는 가족의 요구와 본인의 욕구 등이 주로 이주노동자를 밀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유입국(받아들이는 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과 보다 높은 임금 등은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우리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백분율	비고
이주노동자	543,596	38.3%	
거주자	141,355	10%	결혼이주자 포함
재외동포	121,499	8.6%	외국국적동포를 지칭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적자)
유학	73,838	5.2%	
기타	537,861	37.9%	
전체	1,418,149명	100%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총 15개 나라)

- 타마린드

Tip!

타마린드는 태국과 같은 건조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콩과식물로 노란색 꽃이 핍니다. 20미터 정도로 매우 큰 나무라 공원이나 가로수로 활용됩니다. 콩꼬투리처럼 생긴 열매자루를 까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과육이 나옵니다. 과육은 주스나 음식 재료, 약으로 씁니다. 과육 안에 들어 있는 씨는 먹을 수 없고, 접착제나 옷에 풀을 먹일 때 사용합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angelkittie?Redirect=Log&logNo=80104453449>)



체험해 봅시다.

- 지도상에서 내가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나라를 찾아봅시다. 인터넷에서 그 나라의 위치와 날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봅시다.
- 인터넷을 통해 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문자, 음식 등에 대해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
- 만약 태국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꼬옹과 꼬풍에게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같은 일을 했어도 월급을 절반만 받으시오.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 같은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꼬옹과 꼬풍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지와 같은 주제로 토론해 봅시다.
(이주자의 상황은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동화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공정한 환경과 기회가 보장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 봅시다.)
- 이 동화를 거꾸로 읽어봅시다.
(꼬풍은 왜 게으름뱅이가 되었을까?)
- 엮어보기: 올리볼리 동화 중 '우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를 함께 보고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해 봅시다.



참고 자료

- 유용한 웹사이트
- * 태국 관광청: 태국에 관한 주요 정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http://www.visitthailand.or.kr/home/>
- * 블로그: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태국의 문화, 종교,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ilver7493/140114390635>
<http://blog.daum.net/smily64/13384594>

- 유용한 책

* 로버트 쿠퍼, 난타파 쿠퍼 지음 / 김양희 옮김(2005). 『Curious: 태국』 휘슬러

* 『디스커버: 태국』(2010). 안그래픽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책자인 <론리 플래닛>에서 내놓은 새로운 태국 여행 안내서로, 태국의 역사, 예술과 문화, 음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원복 글·그림(2006). 『가로세로 세계사 2: 동남아시아』. 김영사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시한 책입니다.

* 한국태국학회 저(2005). 『태국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학회가 내놓은 책으로 태국의 자연, 민족, 언어, 역사, 문학,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관광, 풍속, 음식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